

# ‘적자전환’ 새마을금고중앙회, 건전성 고베진다

작년 당기순손실 규모 2501억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영향

“개별 금고 재무상황은 무관  
경기상황 대비 내실 다지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적자전환하면서 금융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600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과 뱅크런(대규모예금인출)으로 흥역을 치른 바 있어 예금안전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다.

중앙회는 이번 적자와 개별 금고의 재무 상황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고객 예금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중앙회는 지역별 금고의 감독 기구여서 개별금고와 사실상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중앙회는 쇠신안 마련과 함께 건전성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당기순손실 규모는 2501억원이다. 전년 당기순이익(4668억원)을 감안하면 153.58% 감소했다. 지난해 건전성 문제가 한 차례도 마 위에 올랐던 만큼 대손충당금 적립 비중을 높이면서 적자전환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적자로 전환하면서 소비자 불안 확산 우려가 나온다. /김정산 기자

지역별 개별금고는 정기공시를 통해 재무상황을 따로 공개하고 있다. 중앙회가 건전성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만큼 차주의 예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 또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확보에 직접 나섰다. 이달 행정안전부는 부실 우려 금고 9곳을 합병했다. 서울 소재 금고는 1곳이며 부산·경북지역 금고가 2곳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금고의 예금은 모두 인근 우량 금고로 이전했다. 합병 과정에서 원금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중앙회에서 총회를 진행하고 선제적으

로 총당금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며 “금융당국의 권고와 함께 올해 경기상황을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일선 금고 또한 중앙회의 결정을 두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실적을 통해 몸집을 부풀리기보다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를 시작으로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내실을 다질 시기라는 것.

실제로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체급 줄이기’에 매진한 바 있다. 여·수신 비중을 모두 줄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새마을금고의 수신잔액은 254조

8919억원이다. 같은 해 1월(259조9706억원) 대비 5조원 넘게 감소했다.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던 7월에는 한 달 사이 수신잔액이 17조6065억원(6.78%) 이탈했지만 연말까지 매달 3~5조원씩 수신하며 회복에 전념했다. 같은 기간 여신잔액은 13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의 여신잔액은 188조1116억원이다. 같은 해 1월(201조120억원) 대비 6.85%(12조9004억원) 쪼그라들었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리스크 또한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출 기조를 보수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새마을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투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직접 들여다본다. 700억원 초과 투자 건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를 300억원 초과 투자 건까지 심사하도록 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분위기가 나빠진 만큼 상표 가치에도 흠집이 났을 것”이라며 “올해는 건전성 제고와 쇠신에만 몰두해 외형확대는 중장기 기획으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카드 News

하나카드

### 제품·서비스 브랜딩 iF 어워드 2024 ‘본상’

하나카드가 ‘제품 및 서비스 브랜딩’ 부문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 ‘초개문화’ 맞춤형 서비스

하나카드는 ‘원더카드(ONETHECARD)’가 ‘iF 어워드 2024’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3년 독일에서 시작한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독일의 레드닷 어워드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손꼽힌다.

원더카드는 지난해 1월 출시했다. 1장의 카드에 혜택을 집중해 소비생활에 최적화된 ‘초개문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출시 1년 만에 50만매 판매를 기록했다.

현대카드

### 이탈리아 디자인의 날 역사·최신유행 홍보

현대카드가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과 협업을 통해 디자인 행사를 진행한다.

◆ 무역장관 및 주요 인사 참석

현대카드는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 ‘이탈리아 디자인의 날 2024’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탈리아 정부가 디자인의 역사 및 최신 유행을 홍보하기 위해 전세계 각국에서 진행한다. 지난 2017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한국 행사는 현대카드와 함께한다. 주제는 ‘디자인 혁신과 지속가능성의 파트너로서의 한국과 이탈리아’다. 기업 및 전문가와 함께 공동으로 행사를 기획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행사에는 ‘에밀리아 가토(Emilia Gatto)’ 주한 이탈리아 대사와 ‘페르디난도 구엘리(Ferdinando Guelli)’ 이탈리아 무역장관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KB국민카드

### 자동납부·할부 고객 추첨통해 캐시백 제공

KB국민카드가 자동 납부 및 무이자 할부 고객을 대상으로 생활비 절감 행사를 진행한다.

◆ 추첨 통해 캐시백

KB국민카드는 봄을 맞아 상품 결제 시 할인 및 상품권 증정 등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달 말까지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별도 응모 없이 초중고 학교 납입금 자동납부를 등록하고 KB페이로 50만원 이상 이용하면 자동으로 추첨한다.

이어 이달 말까지 ▲백화점·대형쇼핑센터 ▲항공사·여행사·면세점 ▲슈퍼마켓·대형마트 등에서 5만원 이상 구매하면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오는 28일까지는 인기 행사 품목 구매 시 즉시 할인한다. ▲신선식품·가공식품·생활용품 ▲인기 가전(노트북·PC·주방가전) ▲가구·완구 등이다. /김정산 기자

## “2금융권 5~7%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금융위, 18일부터 신청·29일 진행  
5% 금리 초과한 금액에 한해 환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5%이상 7%미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이 이뤄진다. 신청은 18일부터이며 이자환급은 29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저축은행·상호금융(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제2금

용권에서 이자환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 5%이상 7%미만 금리를 적용받은 차주다.

환급액은 5% 금리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 이뤄진다.

예컨대 8000만원의 대출을 6% 금리로 1년간 납부한 경우, 5%를 초과한 1%포인트(p)의 금리에 한해 환급액(80만원)을 지급한다. 1인이 최대 수령

가능한 이자 환급액은 150만원이다. 환급기준은 1년이다.

이미 지난 1월 원금을 모두 상환한 차주는 오는 29일부터 이자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원금상환이 1년 미만인 차주는 1년이 됐을 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023년 5월 3년만기로 대출을 받았다면 상환한지 1년째가 되는 2024년 5월 이후에야 이자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용정보

원에 접속하거나 오프라인으로 거래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법인소기업은 카드사 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콜센터, 우편, 이메일, 그외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개시 이후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상황 모니터링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며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女 리더 육성 통해 그룹 경쟁력 강화”

2024 신한 쉬어로스 컨퍼런스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 육성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및 그룹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2024년 신한 쉬어로스(SHeroes)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말했다.

신한 쉬어로스는 2018년부터 시작한 금융권 최초의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으로, 여성 리더 인재 저변을 넓히고 역량 강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 과정을 수료한 쉬어로스 6기 멤버들은 ‘바른 리더(Right Now for Right SHeroes)’라는 주제로 지난해 동안 진행된 교육 성과와 여성 리더십의 비전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은 올해부터 타사의 여성 리더를 강사로 초빙해 최근 업계의 여성 리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성 리더, MZ세대와의 멘 토링 시스템을 추가해 여성을 넘어 다양성을 존중하는 리더가 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 둘째 주 전국 13곳서 1만여 가구 분양

### 분양 캘린더

서울 둔촌동 ‘더샵둔촌포레’ 등 청약

3월 둘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 총 1만979가구(일반분양 838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둔촌포레’,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 경기 이천시 안흥동 ‘이천롯데캐슬센터텔페라스카이’, 경기 평택시 가재동 ‘지혜역반도체밸리해링턴플레이스’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GS건설과 제일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을 분양한다. 아파트 5개 단지 2728가구, 오피스텔 2개 단지 542실 총 3270가구 규모다. 1·2단지는 지하 1층

~지상 최고 29층, 4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전용면적 84~208㎡ 아파트로 조성된다. 3·5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5층, 전용면적 84~149㎡ 아파트와 전용면적 39㎡ 오피스텔로 조성된다. 단지는 인천신항대로, 송도 바이오대로를 통해 송도 전역과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효성중공업은 경기 평택시 가재동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3블록 일원에 ‘지혜역반도체밸리해링턴플레이스’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동, 전용면적 84~103㎡ 총 120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SRT·지하철 1호선 평택지체역과 서정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2025년에는 수원발 KTX가 개통 예정이며 GTX-A·C노선 연장이 확정돼 수도권 및 외곽으로의 이동이 편리해질 예정이다. /김태환 기자 kdh@